<2022년 7월 6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보좌를 더럽혔다. 보좌를 아름답게 한다고 가꾼 꽃과 나무들로 인해 더럽혀졌으니, 모두 자르고 깨끗이 해라. 이와 같이 섭리사 모두 저마다 더러운 마음과 행실들을 회개하여 깨끗이 청소해라.” 하셨다.

2. 하나님의 보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백자갈을 깔아 정결하게 했더니, 보좌 뒤에 있는 ‘야심작 돌’이 독수리 형상으로 또렷하게 보이고, 근엄한 신의 얼굴로 겹쳐 보였다. 하나님은 독수리이시다. 하나님의 보좌를 깨끗하게 하니, 하나님을 보여 주셨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행하여 근본을 회개하지 않으면, 꽃나무와 각종 나무를 베어 없애듯 하리라.” 하셨다.

4. 하나님의 깨끗한 육신이 되어 살아야 생명권의 권세를 뺏기지 않고 살게 된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권에서 떨어진다.

5.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망의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 오직 진실로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